



즉시 배포용: 2022년 12월 2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HECTOR D. LASALLE 판사를 뉴욕주 항소 법원의 수석 판사로 임명
전문 법학자인 LaSalle,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강력한 경험 제공

Edwina G. Richardson-Mendelson 판사, 수석 행정 판사로서 역할 수행 예정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항소법원의 차기 수석판사로 뉴욕주 대법원 2부 재판장 Hector D. LaSalle 뉴욕주 대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LaSalle 판사는 수석 판사로서, 뉴욕의 최고 법원을 이끌며 주 사법부 전체를 감독할 것입니다. 또한, Hochul 주지사는 상원에서 인준될 경우 Edwina G Richardson-Mendelson 판사를 최고 행정 판사로 임명하겠다는 LaSalle 판사의 의도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최고 행정 판사는 주 전체 사법 체계의 일상적인 운영을 감독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항소법원은 정의의 등불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LaSalle 판사는 그 전통에서 뛰어난 법학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최고 법원이 전국적으로 지도자로 보이도록 하는 기술, 경험, 그리고 지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LaSalle 판사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람으로 명성이 자자하며, 저는 그가 정의를 위해 법원을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큰 주 항소 법원을 효과적으로 이끌었고, Richardson-Mendelson 판사와 협력하여 뉴욕 시민들을 위한 정의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법원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뉴욕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저는 LaSalle 판사가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이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aSalle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Hochul 주지사의 임명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엄청난 영예를 안게 되어 그녀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렴하고 공정하게 법원을 이끌며 정의를 수호하고 뉴욕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승인된다면, 저는 Edwina G. Richardson-Mendelson 판사를 최고 행정 판사로 임명할 계획이며, 저는 그녀와 함께 우리 법원이 모든 뉴욕 시민들의 개선을 위해 가능한 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할 것입니다."

LaSalle 판사는 2021년부터 제2부 재판장으로서 21명의 부재판관, 400명이 넘는 비사법 직원, 약 6,9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전국에서 가장 분주하고 가장 큰 주 항소 법원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2008년 뉴욕주 대법원 판사로 선출된 후 2014년 제2부 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LaSalle 판사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서퍽 카운티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검사보를 지냈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특별수사국 부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는 1998년부터 1999년까지 Ruskin Moscou Faltishek, P.C.에서 검사보로 근무했으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확정되면 LaSalle 판사는 첫 라틴계 수석 판사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났으며, 그는 롱아일랜드에서 자랐고, Brentwood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의 가족 중에서 대학 학위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LaSalle 판사는 1990년에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했고 1993년에 미시간 대학 로스쿨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뉴욕주 변호사 협회, 서퍽 카운티 변호사 협회, NYS 라틴계 판사 협회, 푸에르토리코 변호사 협회의 회원입니다.

Edwina G. Richardson-Mendelson 판사는 2017년부터 뉴욕 통합 법원 시스템의 사법 이니셔티브를 위한 부행정 판사이자 청구 법원 판사로 활동했습니다. 이 역할에서, 그녀는 수입, 배경 또는 능력에 관계없이 민사, 형사 및 가정 법원에서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정의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Richardson-Mendelson 판사는 또한 평등사법재판소 이니셔티브(Equal Justice in Courts Initiative)를 주도하여 주 법원 시스템의 인종적 편향에 대한 평등사법특별보좌관인 Jeh Johnson의 권고안을 이행하고 뉴욕주 여성사법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여 뉴욕주 법원에서 성 평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Richardson-Mendelson 판사는 2017년 청구법원에 임명되어 현재까지 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Richardson-Mendelson 판사는 뉴욕주택 법원, 가정 법원 및 대법원에서 고객을 대변한 후 퀸즈 카운티 가정 법원의 법원 변호사-심판관으로 법원 시스템에 처음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2003년에 가정법원 판사가 되었고, 2008년에 퀸즈 카운티 감독 가정법원 판사가 되었으며, 1년이 지난 후 뉴욕시 모든 가정법원의 행정판사로 승진했습니다. Richardson-Mendelson 판사는 CUNY 로스쿨을 졸업하고 형사사법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John Jay 형사사법대학 및 Hofstra 법학대학원의 겸임 교수였습니다.

항소법원 수석 판사 선정 절차는 법령에 의해 관리되며, 주 사법공천위원회(Commission on Judicial Nominatio)가 주도합니다. 이 위원회는 주지사에게 7명의 후보자 목록을 보내며, 주지사는 이 목록에서 한 명의 후보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